

#코딩쟁이 #아이디어뱅크 #성취중독 #열정FULL

안녕하세요, **3분의 1**같은
Interaction Designer & Publisher
조예슬입니다.

조예슬 | 여 1998년, 24세
휴대폰 | 010-9837-1302
Email | jys0323117@naver.com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학력

2018. 03 - 2019. 02	협성대학교 시각조형디자인과
2019. 03 - 2021. 02 (졸업)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기획 / 디자인 / 프로그래밍) 학점 3.97 / 4.5

수상

2019년	계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연말 PT ‘기초 영상’ - 우수작 선정 ‘10cm - 스토킨’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였습니다. 저는 뮤직비디오 주인공 출연, 스토리 기획 및 아이디어 정리, 촬영본 편집을 하였습니다.
2020년	CDAK 국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입선 자취생을 위한 랜덤 쿠키 박스 어플리케이션인 ‘What Yum’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하였습니다. 저는 서비스 아이디어와 흐름도, 스토리보드, UI 스케치등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설명하는 모션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계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졸업 작품 - 최우수작 선정, PT우수작 선정 여행 기록 어플리케이션인 ‘MOMENTRIP’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 웹 / 프로토타입 구현 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서비스의 아이디어 성립 및 구체화, 기획 구체화, 디자인 중 일러스트, 홍보 영상 편집, 포토북 제작 및 부스 디자인, 반응형 웹 페이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https://choyeseul.github.io/ChoYeSeul_Portfolio/html/index.html

보유 기술

프로그래밍	HTML, CSS, C#, JavaScript, JQuery, GIT
디자인	Illustrator, Photoshop
영상 편집	Premere Pro, 3D MAX, After Effect
문서 정리	XD, PowerPoint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아시나요? 그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끝없는 0.33333...이라는 소수가 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소수로 나타내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끝이없는 호기심, 열정, 도전정신등으로 뭉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끝없는 가능성을 지닌, 3분의 1같은 Interaction Designer & Publisher, 조예슬입니다.

#끝없는 호기심

‘밤하늘의 색은 검정색이 아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동화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당연하게도 낮의 하늘은 하늘색, 밤하늘은 검정색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인지 그 책의 구절이 제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쩐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그 날의 밤하늘을 관찰하였고, 붉은 빛의 노을을 지나 눈 앞에 어두운 남색이 끝없이 펼쳐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색’이라는 단어 안에 정의할 수 없는 많은 색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그 날의 기억이 제게 끝없는 호기심을 만들게 했습니다. 호기심의 연속, 그 안에서 얻은 넓은 시각은 틀에 박히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듭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분석하고 새롭게 상상하는 것, 그 것에 대한 흥미는 그 무엇보다 짜릿하였고 그 짜릿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관심

저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를 전공하며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 중 프로그래밍을 심화 전공 하였습니다.

똑똑한 기획을 하는 법, 빈틈을 보이지 않는 허를 찌르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그 뼈에 튼튼하게 살을 붙여주는 기획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사용자를 이해하고 Needs 와 Wants를 파악해 충족시키는 아이디어들을 기획하였고, 그에 맞게 Service Flow, UX / UI Design, Persona등을 포함한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실제 CDAK 공모전 입선 작품인 ‘What Yum’의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서 제작을 맡았고, 최우수 졸업 작품 평가를 받은 ‘MOMENTRIP’의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서 제작 또한 맡아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 목표는 UX/UI , Branding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수집하고, 따라해보며 디자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당시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화면을 설계하는 것, 브랜드의 분위기를 잘 살릴 일러스트, 로고 제작등에 흥미가 있었고, 이들을 모두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맞추어 해당 과로 진학을 하여 다양한 툴을 익히고 사용하여 여러 작업물을 만들어냈고, 기획 부터 디자인, 프로그래밍까지 심화 전공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이해하고 끝없는 관심을 가진 개발자입니다.

디자인 했던 것들이 상상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작성한 코드 몇 줄에 의해 실제로 인터랙션 되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구현 기술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이 웹을 실제로 접하고 사용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즐거웠고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내 마음에 드는 웹 개발을 넘어 사용자를 이해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Web을 꾸미는 Interaction Designer, Front-end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 습니다. 어떤 디자인과 인터랙션이 어우러져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사용자에게 정확히 또는 흥미롭게 전달될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끝없는 도전

시험에 나올 문제라는 선생님의 말씀보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흥미가 더 큰 학생. 저는 꽤 도전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지우기를 반복하여 결국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응용해 새로운 문제를 낼 정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두 다리 쪽 뻗고 자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도전은 단지 문제를 풀 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 연필 잡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배우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스스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어 재수, 반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도전 정신은 대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코드들을 응용하여 이리저리 도전하느라 며칠 밤을 지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배운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만들어 내는 것, 원하는 기능을 이루어 냈을 때의 기쁨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가지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르게 생각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것. 저는 끝없이 도전하는 개발자입니다.

#끝없는 소통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수원 역사점에서 정식 사원으로 약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고객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기들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사회 생활 속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법,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유지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상대 의사의 논점이 무엇이고, 나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으로 전달될 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속 분위기에 맞춰 끝없이 소통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개발자가 될 것입니다.

#0.3333333333...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뭉치고 해체하는 개발자. 한계와 끝을 정해놓지 않고 개방적인 시선과 호기심으로 여러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개발자가 되어 창의적이고 심도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JavaScript와 JQuer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하여 더욱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구상하고 직접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인 Front-End 개발자에서 더 나아가 Back-End개발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웹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안의 기능을 구현하는 Back-End도 이해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동반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분의 1같은, 더욱 발전하는 사람, 조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